



금융감독원

보 도 자 료



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



행복하게

보도	2023.9.27. (수) 조간	배포	2023.9.26. (화)
----	-------------------	----	----------------

담당부서	펀드신속심사실 심사총괄팀	책임자	실 장	민봉기	(02-3145-7100)
		담당자	부국장	박상준	(02-3145-7102)

펀드신속심사실 신설 이후 성과 및 향후 계획 - 펀드심사 적체건을 대폭 감축하고 처리기간을 단축하였습니다 -

※ 금융감독원 업무혁신 로드맵, 「FSS, the F.A.S.T.」 추진과제

I. 개요

- 금융감독원 (원장 이복현)은 그간 일반사모펀드, 외국펀드 등에 대한 심사수요 증가에도 업무 처리가 지연·적체됨에 따라 이를 적극 해소하고자,
 - 지난 1월 ('23.1.31.) 펀드신속심사실을 신설하고 담당인력도 대폭 확충 (13명 → 21명, +61.5%)한 바 있습니다.
- 부서 신설 이후 일하는 방식 개선, 업무효율화 방안 마련·추진 등을 통해 급증하는 펀드시장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습니다.

II. 부서 신설 이후 주요 성과

1. 심사 적체건을 대폭 감축하고 처리 기간을 단축하였습니다.

- 인력 보강, 집중 심사 등을 통해 그간 인력 부족 등으로 처리가 지연되던 일반사모·외국펀드 심사* 적체건을 대폭 감축하였습니다.

* (일반사모) 설정·설립 이후 관련 사항 사후보고 ☞ 보고사항 확인·접수
(외국펀드) 국내 판매를 위해서는 사전등록 필요 ☞ 등록 심사

- 일반사모펀드의 경우, '22년말 기준 미처리 보고건 11,730건을 '23.8월말까지 2,458건으로 79.0% 감축하였으며,
- 외국펀드의 경우, '22년말 기준 등록대기 중*인 심사건 218건을 '23.8월말까지 18건으로 91.7% 감축하였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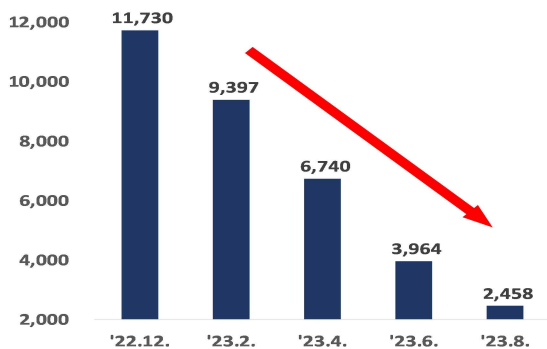
* 등록 관련 사전질의, 신청서류 준비·보완, 등록신청 및 검토 중

※ 펀드신속심사실 신설 前 일반사모·외국펀드 적체건('22년말 기준) 감축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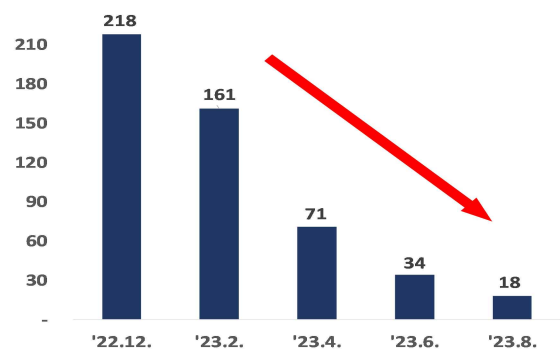
✓ (일반사모) ['22.12말] 11,730건 → ['23.8말] 2,458건 (△9,272건, △79.0%)

✓ (외국펀드) ['22.12말] 218건 → ['23.8말] 18건 (△200건, △91.7%)

일반사모 적체건 ('22말 기준) 감축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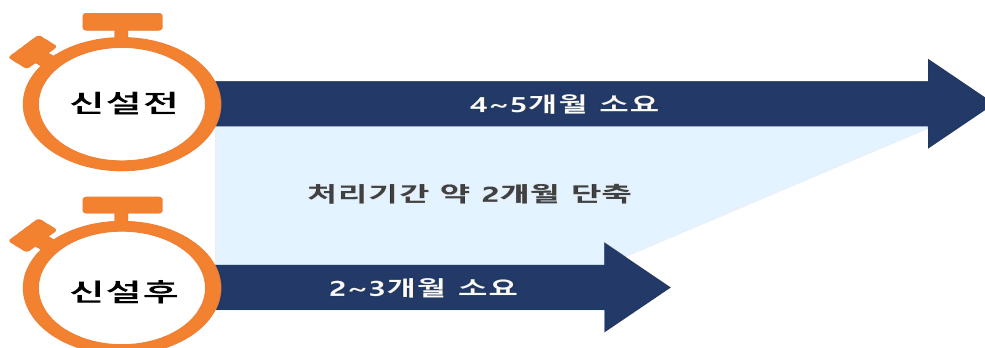


외국펀드 적체건 ('22말 기준) 감축 추이



- 또한, 전담인력 배치 (4명) 등을 통해 통상 4~5개월 내외 소요되던 외국펀드 등록 기간을 2~3개월 이내로 단축하여 신속 처리를 도모하였습니다.

부서 신설 전후 외국펀드 처리기간 비교



2.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하였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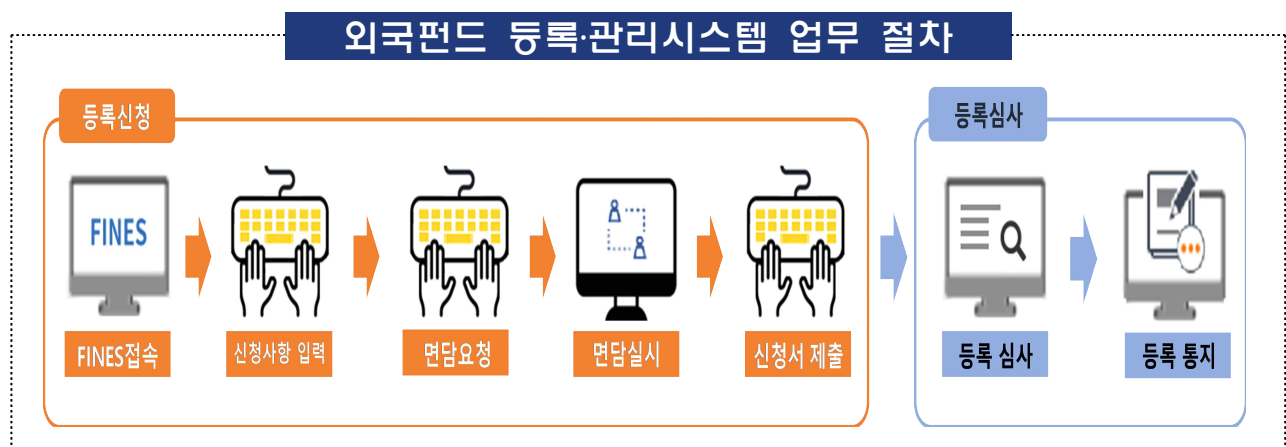
- 일반사모펀드의 경우, 보고접수 처리 수요가 많은 운용사에 직접 방문하여 보고사항을 확인 후 일괄접수하는 한편,
 - 현장에서 주요 보고 오류사례, 보고시 유의사항 등도 즉시 전달하여 향후 보고사항 보완에 따른 처리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으며,
 - 업무처리 방식도 접수순서에 따른 건별 방식에서 회사별·유형별 일괄처리 방식으로 전환하여 업무처리 효율화를 추구하였습니다.
- 또한, 시장 참여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의 의견을 적극 청취*하여 업무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 모색하였습니다.

* 부서 신설 이후 업계 간담회 7회 실시

3. 신속효율적 심사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강화하였습니다.

- 외국펀드의 경우, 전산시스템 부재에 따른 업무 비효율을 해소하고자 외국펀드 등록·관리시스템*을 구축·가동('23.7월~)함으로써 등록 쏘과정 (신청 ~ 등록)을 전산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* 금감원 금융정보교환망 (fines.fss.or.kr)에서 외국펀드 등록신청, 기존 신청내역 조회, 담당자 지정·업무진행 현황 및 심사결과 등 확인



- 일반사모펀드의 경우, 설정·설립 관련 보고사항을 핵심사항 위주로 표준화·간소화*할 수 있도록 서식을 개정 ('23.7.1. 시행)하였고,

* 보고서식을 표 형식(정형데이터)으로 변경하고, 기재내용도 간소화 (서술 → 선택방식)

- 개정 서식을 지원하는 일반사모펀드 보고접수시스템 개선 작업도 '23.4분기 가동을 목표로 진행 중입니다.

Ⅲ. 향후계획

-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업무역량을 집중하여 잔여 적체건을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며,

- 지속적인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펀드 심사건을 적정 수준* 이하로 관리함으로써 심사 적체 및 처리지연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
* 펀드 상품의 성격(사전등록, 사후보고), 신규 접수 건수 증감, 실무처리 소요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

- 또한, 최근 도입한 외국펀드 등록·관리시스템의 안정화 및 일반사모펀드 보고접수시스템의 연내 가동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.